

프랑스 브르타뉴 농산물 가공업의 위기와 '붉은 모자'의 반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양리원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 법학 석사과정)

■ 머리말

2014년을 며칠 앞둔 지금, 프랑스 정부는 또 한 번 일련의 고용구제책을 마주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그의 임기 첫 해인 2012년에도 이미 84개의 기업, 60,000개의 일자리가 고용구제책의 대상이 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¹⁾ 지난 몇 달간 끊임없이 대량해고가 속출하고 있고, 이번에는 우편주문회사인 라 르두트(La Redoute), 네트워크 통신회사인 알카텔-뤼상(Alcatel-Lucent)²⁾, 닭고기 전문회사인 툴리사코(Tilly-Sabco), 가전제품회사인 파고 브랑드(Fagor Brandt) 등이 고용구제책을 제출했거나 제출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전체 고용구제책의 수를 고려하면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2009년의 기록적인 수치³⁾ 이후 한동안 하락세를 유지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고용구제책(Plan de sauvegarde de l'emploi, PSE 또는 plan social)이란 기업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사용자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경우 해고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

1) Le Monde(2012. 6. 7), « Plans sociaux : près de 60 000 emplois visés »

2) 2007년 2월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Cisco를 이어 세계 2위 네트워크 통신 업체였으나 그 이후로 계속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12년에는 13억 유로에 달하는 적자를 냈고, 2013년 10월에는 10,000개의 일자리를 감축시키는 내용의 대규모의 고용구제책을 발표했다.

3) 2009년 9월 기준 2,188개의 고용구제책이 등록되었다.

하는 법적 조치를 뜻한다. 노동법전 제L1233-1조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30일 동안 최소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구제책을 채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와 동일한 카테고리의 직무, 동등한 성격의 직무 혹은 하급 카테고리 직무로의 재배치, 기업 내 새로운 업무 개발, 기업 외부로의 재배치, 직업훈련, 근로시간의 개편 혹은 축소, 정기적으로 수행하던 추가 근무시간의 축소 등의 조치들이 있다. 고용구제책은 해고되는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재배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3년 초부터 9개월 동안 총 736개의 고용구제책이 정부에 통고되었고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6%가 증가한 수치다. 노동부는 지난 1년 동안 약 1,000여 개의 고용구제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 분위기가 좋을 수 없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한 노조의 시위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조용히 마무리된 반면 격분의 감정들은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로 추방된 코소보 여중생 레오나르다를 지지하는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파리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자동차 그룹인 PSA 푸조 시트로엥의 푸와시(Poissy) 공장에서는 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7명의 근로자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졌고 포장업체인 베제구쌍(VG Goossens) 공장의 근로자들은 127개의 일자리 감축에 반발해 가스병을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단연 브르타뉴의 농산물 가공업체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만하다.

■ 브르타뉴 농산물 가공 업계의 위기

1532년 프랑스에 합병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했던 브르타뉴(Bretagne) 주(州),

4) Le Monde(2013. 11. 5), « Le gouvernement confronté à une nouvelle vague de plans sociaux »

région)⁵⁾는 15세기 말부터 17세기 중반 넘어서까지 번영기를 누렸다. 17세기 중반, 프랑스 국왕은 프랑스-브르타뉴 합병조약의 내용을 무시한 채 브르타뉴 주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붉은 모자(bonnet rouge)를 쓴 농민들은 이 세금에 반대하며 1675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킨 바 있고 이후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으로 해상교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브르타뉴는 빈곤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이 지방 인구의 큰 비중이 이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화를 열망하면서 농업생산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브르타뉴 농업은 어느덧 유럽 농업의 선봉에 이름으로써 브르타뉴 주의 발전을 지탱하게 되었다. 기계화와 더불어 높은 생산성을 목표로 구축된 이 같은 브르타뉴 농업 시스템은 “브르타뉴 농업 모델(Modèle agricole breton)”, 더 넓게는 “브르타뉴 모델(Modèle breton)”이라는 명칭으로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브르타뉴 모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농업은 경제적·생태적 위기를 맞았고, 공업 분야는 허술하고 다양성이 부족했다. 브르타뉴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더 높은 보수를 찾아서 파리로 떠났다. 브르타뉴어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문화는 곤경에 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브르타뉴 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인 농산물 가공 업계가 위기를 맞으며 악화되었다.

먼저 2012년 6월, 브르타뉴 주의 4개 도(道, Département) 중 하나인 피니스테르(Finistère) 도에 위치한 가금사육업체인 두(Doux)가 파산 위기에 처했음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법적 회생절차 중인 이 기업은 지난 1년 동안 1,000명에 이르는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였다.⁶⁾ 2013년 6월에는 세계 1위의 연어 양식 및 가공 글로벌 기업인 마린 하베스트(Marine Harvest)가 브르타뉴 주의 피니스테르(Finistère) 도와 일레비렌(l'île-et-Vilaine) 도에 각각 위치한 공장 두 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폐쇄는 2014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약 400개의 일자리가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⁷⁾

브르타뉴 지역 내 농업조합인 세갑(Coopérative CECAB)이 제1주주로 있는 도축·분할가공 기업인 가드(Gad)그룹은 돈육 관련 기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21

5) 프랑스 북서쪽 극단에 위치한 브르타뉴 주는 일레비렌(l'île-et-Vilaine), 코트뒤노르(Côtes-du-Nord), 모르비앙(Morbihan), 피니스테르(Finistère)의 4개 데파르트망(道, Département)으로 나누어져 있다.

6) L'Humanité(2012. 9. 10), « Groupe Doux : 1,000 salariés sur le carreau »

7) Le Monde(2013. 10. 6), « Des salariés bloquent un abattoir dans le Finistère »

일부터 법적 희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세캅은 10월 9일 브르타뉴 주의 주도(州都)인 렌(Rennes)의 상사법원에 연장계획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르면 피니스테르 도의 3개 공장을 폐쇄하고 모르비앙(Morbihan) 도의 조슬랭(Joselin) 공장만을 남기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10월 11일, 렌 상사법원(le Tribunal de commerce de Rennes)은 이 계획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계획에 따라 공장이 폐쇄될 시 1,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정리해고 되는 상황에 처한다.⁸⁾

이에 더해, 닭고기 수출업체인 툴리 사코(Tilly-Sabco) 또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업계 2위인 이 기업이 내년 1월부터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⁹⁾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올해 7월, 가금업계 수출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11월 5일 발표하였다.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가격경쟁력 면에서 브라질 업체에 밀린 툴리 사코는 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수출이 기업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중단은 피니스테르 도에 위치한 툴리 사코 공장 340명의 직원들에게 직격타를 입히는 일이고 하청업체와 납품업체까지 포함한다면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일이다.

이처럼 브르타뉴 주의 농산물 가공 업계 전반에 대량해고 상황이 속출하자 축산업자 및 두, 가드, 마린 하베스트, 툴리 사코의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피네스테르 도의 두 도시인 브레스트(Brest)와 모를레(Morlaix)에서는 브르타뉴 농산물 가공 업계에서 ‘사회적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시위가 열렸다. 가드(Gad)의 노조 ‘노동자의 힘(FO)’ 위원장인 올리비에 르 브라(Olivier Le Bras)는 현재 브르타뉴의 농산물 가공 업계에서 일어나는 위기를 ‘사회적 쓰나미’라고 표현하며,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8,000명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5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이들은 브르타뉴의 주요 도로를 봉쇄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통해 정부의 주의를 끌고자 했다.¹⁰⁾ 10월 16일, 브르타뉴 제품협회(Association bretonne des

8) Le Monde(2013. 10. 9), « Dans le Finistère, l' abattoir Gad devrait être sacrifié »

9) Le Figaro(2013. 10. 31), « Le volailler breton Tilly-Sabco va suspendre sa product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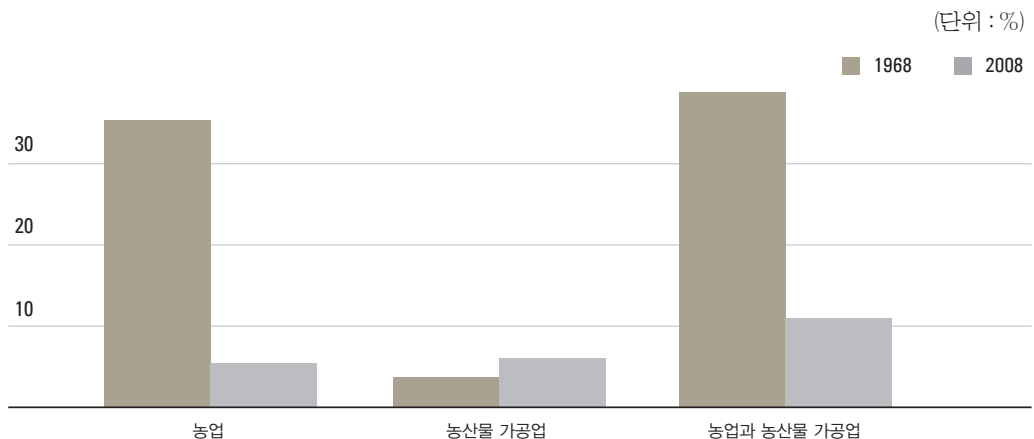
10) Le Monde(2013. 10. 14), « Agroalimentaire : colère en Bretagne, réunion d'urgence à Matignon »

entreprises agroalimentaires, ABEA)와 브르타뉴 농산물가공업체협회 (Association “Produit en Bretagne”)는 10월 10일 시위 이후 또 한 차례 시위를 벌였고 슈퍼 유(Super U), 인터마크 (Intermarche), 르 클렉(Leclerc)등의 대형 유통마트들은 ‘브르타뉴가 불타고 있다!(Bretagne brûle)’는 슬로건 아래 한 시간 동안 영업을 중지하는 시위를 벌였다.¹¹⁾ 이것은 일부의 격한 반응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브르타뉴가 정말 불타고 있는 것일까?

■ 브르타뉴 주(州)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분야의 고용상황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연구¹²⁾에 따르면 40년 전까지만 해도 브르타뉴 주의 농업 분야 고용은 프랑스에서 가장 높았다. 브르타뉴 주 전체 고용의 3분의 1은 농업 분야에서 이

[그림 1] 브르타뉴 지역 농업 분야 고용의 쇠퇴



주 : 1968년 35%에 달하던 농업 분야의 고용은 40년 동안 급격하게 줄어 2008년에는 5.3%에 그침. 농산물 가공업 분야의 고용은 1968년 이후 증가하여 2008년에는 프랑스 도(道, Département) 중 가장 높은 5.7%에 이르렀으나 성장세는 멈추었음.

자료 : Le Monde, INSEE.

11) Le Monde, « Agroalimentaire : le gouvernement face à la colère de la Bretagne », 2013.10.16

12) INSEE, Bretagne Dossier d’Octant n° 55 Octobre 2012

루어졌고 이는 전국 평균보다 두 배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1968년 브르타뉴 주 전체 고용의 35%에 달하던 농업 분야 고용이 2008년에는 5.3% 수준으로 감소했다. 상파뉴 아르텐(Champagne-Ardenne) 주, 리무장(Limousin) 주, 오베르뉴(Auvergne) 주 등에 밀려 지금은 프랑스 내에서 일곱 번째 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농업 분야의 쇠퇴는 다른 수치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지 면적은 2000년에 1,701,568헥타르에서 2010년 1,729,000헥타르로 거의 비슷한 반면, 경작지 수와 농민 수는 3분의 1이 줄었다. 고용부문에 있어 유일하게 증가한 수치는 상용근로자이면서 고용주의 가족구성원이 아닌 근로자(salarié permanent non-familial)의 수이다. 다시 말해 가족 단위로 운영되던 중소기업들이 몰락하고 대형 기업들 위주로 산업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

집약농업과 함께 농업 생산이 근대화·기계화되면서 농업 종사자는 감소했으나 농산물 가공업 분야는 발전하기 시작했다. 1968년에서 2008년 사이 브르타뉴 주는 농산물 가공업 분야에 있어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2008년 브르타뉴 주의 농산물 가공업 분야 고용은 프랑스 전체 농산물 가공업 분야 고용의 12.1%를 차지했는데 이는 론 알프스(Rhône-Alpes) 주의 8.8%나 일드프랑스(ile de France) 주의 8.4%에 비해 매우 앞서는 수치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정규직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임시직은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분야 고용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11%)은 프랑스 전체의 상황(7.4%)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일련의 고용구제책들이 보여주듯이, 경제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임시직이다. 그만큼 고용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은 브르타뉴 주의 산업 후퇴를 1990년 이후로 미루어 놓았다. 이는 프랑스의 다른 지방들이 산업 후퇴를 겪기 시작한 것보다 15년이나 늦은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까지 규칙적이었던 농산물 가공업 분야의 고용증가 속도가 2000년대 초반에 이르자 늦춰졌고 그러다 고용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피니스테르(Finistère) 도의 농산물 가공업 분야에서만 3,000개의 일자리가 감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업 및 농산물 가공업 분야의 고용은 1968년 이후로 증가하여 지난 40여 년간 브르타뉴 주의 전체 고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세계화와 소셜 덤핑이다. 브르타뉴 주의 닭고기 수출업체들(Doux, Tilly-Sabco)은 그동안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고 닭고기를 중동 지역 국가와 아프리카로 수출해 왔다. 그러나 유럽연합위원회는 지난 7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¹³⁾ 보조금 없이는 값싼 노동력 덕분에 더 낮은 가격으로 이들 국가에 닭고기를 제공할 수 있는 브라질과의 경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 연합 가입으로 프랑스는 독일 등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기 시작하고 있다. 독일은 도축·분할 전문 공장에 폴란드나 루마니아 인력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출신 국가의 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 있어 프랑스보다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점점 투기적으로 변하는 농산물 가격 변동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브르타뉴의 사육장들은 사료를 대부분 수입하는데 그 가격이 지난 몇 년 동안 상승한 것 또한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더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성장으로 공급자들은 가격과 마진 책정에 있어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가 있다. 용수에 질산염의 비중이 높아진 점이나, 이번 여름 브르타뉴 해변을 가득 채운 녹조 현상 등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근심을 사면서 농업폐기물의 처리 또한 업계가 유의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육지의 확장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담은 지침을 채택하였다. 환경규제 기준이 높아질수록 이 또한 업계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브르타뉴 주(州)의 총체적 위기

10월 16일 장-마르크 애로 총리는 피니스테르(Finistère) 도의 상황이 위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스테판 르 폴 농산부 장관, 기욤 가로 농산물 가공업부 장관, 미셸 사팡 노동부 장관, 아르노 몽트부르 산업재건부 장관과 브르타뉴 주 출신의 마를리즈 르브랑슈 공직부 장관과 장 이브 르 드리앙 국방부 장관을 소집해 장관급회의를 열었다. 회의 끝에 애로 총리는 이날 ‘브르

13) Le Monde(2013. 7. 19), «La fin des aides européennes met à mal les exportateurs français de poulets»

타뉴 미래전략(Pacte d'avenir de la Bretagne)'을 발표했다.¹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위기를 겪고 있는 농산물 가공업 분야의 기업들에 1,5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해고가 결정된 889명의 가드(Gad)그룹 근로자들과 개별 직업안정계약(Le contrat de sécurisation professionnelle)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약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대상인 근로자들에게 1년 동안 명목임금의 80%(실질임금의 97%)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근로자 20명당 1명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재취업을 돕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응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되다 못해 더욱 격렬해졌다. 10월 29일 정부는 격렬한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던 환경세 부과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피니스테르 도의 수도인 캄페르(Quimper)에서는 농부, 운송업자, 사용자, 수공업자, 노동자, 상인, 지방의회의원 등 15,000명이 운집한 가운데 '환경세 반대와 고용을 위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¹⁵⁾ 시위 참가자들은 역사적으로 브르타뉴 농민반란을 상징하는 붉은 모자(bonnets rouges)를 쓰고 브르타뉴의 경제위기에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브르타뉴의 '붉은 모자' 시위는 연일 뉴스 헤드라인에서 빠지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공통된 점은 브르타뉴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히 농산물 가공업 분야 근로자 몇 천 명의 해고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브르타뉴 주의 위기는 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위기이며, 이는 또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물론 그 첫째는 경제적 위기이다. 정부의 거침없는 중상주의 정책과 유럽연합의 강력한 농업진흥정책으로 브르타뉴는 지난 반세기 동안 농업 분야에 있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 농산물 가공업 분야에서만 65,000개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뿐이 아니다.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는 브르타뉴 주도(主都)인 렌(Rennes)에 위치한 PSA 푸조 시트로엥 공장 근로자의 3분의 1이 해고된 바 있고, 통신 기업인 알카텔 루상(Alcatel-Lucent) 또한 현재 살아남기 위해 고투를 벌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분야, 특정 기업이 아니라 브르타뉴 주 전 산업에 위기가 닥쳤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사회적 위기이다. 최근까지도 브르타뉴 주의 실업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

14) Le Monde(2013. 10. 17), «Le coup de pouce de Matignon à la Bretagne»

15) Le Monde(2013. 11. 5), «A Quimper, les 'bonnets rouges' s'unissent pour 'faire vivre le pays'»

적인 편이었다. 2013년도 1분기 프랑스 전체 평균 실업률은 10.4%인 반면 브르타뉴 주의 실업률은 9.1%로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동향은 현재 역전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전체 카테고리 실업자 등록률이 프랑스 전체 평균인 7.4%보다 높은 8%, 총 232,000명으로 상승했다. 1년 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 등록만 보면 그 증가률은 더욱 높다. 이 지역은 프랑스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실업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브르타뉴 주의 지역적 특성이 더해져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도시학자인 로랑 다브지(Laurent Davezies)에 따르면 브르타뉴 주는 지역개발에 관한 언젠가 집단동원력이 강한 지역이었다고 한다.¹⁶⁾ 역사적으로 중앙정부와 언젠가 대립관계에 있어 왔고 협상은 항상 격렬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 그 이유로 다브지는 지리적 위치에서 오는 고립감과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브르타뉴 사람들의 인식을 들고 있다.¹⁷⁾ 1960년대에도 브르타뉴 주는 드골 정권 하에서 정부와 이미 격렬한 마찰을 겪은 바 있다. 철도 특혜 요금과 특정 도로 무료화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시위를 벌인 것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되어 있는 환경세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과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 북서쪽 끝단에 위치한 브르타뉴는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도로교통을 철도나 내륙수로교통 등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철도나 수로교통은 농산물 가공품이나 공업품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세는 브르타뉴 주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도로교통을 이용해 물건을 운반해야 하는 브르타뉴 업계 종사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붉은 모자’ 시위 그 이후

환경세가 시위의 도화선이 될 만큼 민감한 사안임을 인정한 정부는 10월 29일 환경세 부과

16) Le Monde(2013. 10. 30), «Ce que la crise bretonne révèle des fractures territoriales françaises»

17) 브르타뉴 주의 4개 도(Département) 중 하나인 피니스테르(Finistère) 도의 이름은 라틴어로 ‘땅 끝’을 뜻하는 ‘Finis Terrae’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조치를 중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르타뉴 곳곳의 크고 작은 시위들은 멈추지 않고 있다.¹⁸⁾ 이에 더해 ‘붉은 모자’ 시위 주최자들은 11월 30일 다시 한 번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계속된 시위에 노동부 장관인 르 폴(Le Foll)은 2014~2020년 농업 발전을 위한 유럽 농업기금(Le Fonds européen agricole pour le développement rural (FEADER))을 1억7천5백만 유로에서 3억6천8백만 유로로 두 배 증액할 것이라고 11월 8일 발표했다.¹⁹⁾ 또한 브르타뉴 주 경제 전반을 위해서 10억 유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육장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브르타뉴 사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 닥친 경제적·사회적 위기 때문이지만 이에 더해 정치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브르타뉴 주는 사회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파가 우세했으나 이후 좌파로 기울었다. 현재도 지방 의회에서 사회당과 녹색당이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좌파 지역인 파드칼레(Pas-de-Calais) 주나 부슈뒤 론(Bouches-du-Rhône) 주 또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이 지역의 표를 지키는 것이 상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더해 위기를 틈타 극우파가 성장하는 것 또한 막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초반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브르타뉴 사태에 대응하여 ‘브르타뉴 미래계획’을 발표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환경세 부과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온 것이다.

이에 더해 프랑스 전체적인 상황도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설명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경제 위기로 인해 특정 지역들이 더 크게 타격을 입으며 도시와 농촌 간 혹은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업률이나 고용구제책 채택률 등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영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11월 30일의 대규모 시위가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을 동원할 수 있을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KLI**

18) Le Monde(2013. 11. 4), «Malgré la suspension de l'écotaxe, la mobilisation se poursuit en Bretagne»

19) Le monde(2013. 11. 8), «En Bretagne, les 'bonnets rouges' se mobilisent malgré les gages de Le Foll»